

대반전

MVMT 1: 그가 살아나셨다(누가복음 24:1-12)

1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니 -누가복음 24:1

● 첫째 날 - 여덟째 날,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. ◦ 이야기는 부활절을 새로운 시작으로 보도록 초대합니다. 당신이 창조된 삶의 시작. 변화하는 모든 것의 구걸.

2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나온 것을 보고 **3**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체가 없더라 -누가복음 24:2-3

- 무덤은 비어 있었다 - 혼란, 경외, 당혹감... ◦ 이 이야기가 이상하게 느껴지나요?
그들에게도 그랬다.
- 완전히 헤아리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?
◦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?

4 그들이 의아해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번개 같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**5** 여자들이 무서워하여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매 남자들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

6 그는 여기 없다. 그는 일어났다! -누가복음 24:4-6

- 그들은 수수께끼에 대해 숙고했습니다. 아마도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 환멸을 느꼈을 것입니다. 그가 당신을 실망시킨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. 아니면 모든 것이 믿을 수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. 당신은 좋은 회사에 있습니다.
- 그들에게는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라... 시신을 누가 훔쳐간 것 같아서 제대로 비통해 할 수도 없다.

- 무덤에 묻힌 채 꿈과 희망을 마주하기 위해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. 그들의 상실을 슬퍼하며 종결 과정을 시작하기를 희망합니다.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희망과 꿈을 뛰어넘는 것입니다. 마치 그들의 전체 신념 체계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.

● 이 세상의 망가진 것이 역전되리라는 그들의 희망은 무덤에서 죽은 것입니다.

- 그들의 희망은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기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. 대신 그는 그것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.

●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?

- 그리고...
-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...
- 사도들 - “**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시나이까?**” 그는 여기 없다; 그가 **살아났다!**
 - 대반전이다.
 - **예수가 우주 우노 역전 카드를 낸 것과 같다.**
 - 충격과 당혹감이 우리에게 단서가 되어야 한다. 그들은 이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.
 - 죽은 사람은 살아서 돌아오지 않습니다.

● 예수님의 성역의 한 측면은

신성에 대한 그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은 그가 사람들을
그렇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

당신은 죽음 자체에 대한 권세를 가졌습니다. 그리고 누가 가질 수 있었는지
하나님 이외의 죽음에 대한 권세?

● 그런데도 예수님은 죽음에 짓눌린 것 같았습니다.

● 죽음 자체로 죽음을 이겼다.

●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. 그는 살고 있다.

● “그가 살아나셨다”

● 유대 민족은 그들의 신학에 사건으로 생각되었습니다.

하나님은 죽어 잠자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깨우실 것입니다.

그에게 충실하고 그들을 다시 살리십시오. 메시야가 그랬을 때

이것은 이 망가진 인류의 시대가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.

- 메시아가 죽었다가 지금 다시 살아나셨다면 우리가 그 시점에 있다는 뜻입니까?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입니까?
- 어쨌든 미래의 희망이 현재에 도래했다.
-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?
- 이야기는 계속된다...

그가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.
7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' "**8**
 그러자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. -누가복음 24:6-8

- 그들은 그의 말을 기억했다 -
 - 이것은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성취이다.
 - 대대로 펼쳐져 온 약속입니다.
 - 유대인들은 이야기의 일부는 맞았지만 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.
 -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잊었습니다.
 - 알림이 필요했습니다.
 - **우리와 너무 닮지 않았나요?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에 압도되고 혼란스러워지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.**
- 9**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일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. **10** 이 일을 사도들에게 알린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었다. **11** 그러나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허튼 소리로 여겨 믿지 않았다. -누가복음 24:9-11

- 이 모든 일을 **11 제자들**에게 말하되...
 - 보세요... 그들에게도 부활은 미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.
 - 여기서 예수님은 다시 가십니다. 혁명적입니다.
 - **1세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저서 유대인의 고대 유물에는 여자가 있을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들은 무엇이든 신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"무모하고, 경솔하고, 주제넘다."**
-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증명하려는 경우
 - 그 당시에는 여성을 데려오는 것이 불법이었고 잘못된 조언이었습니다.
 -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공유된 여성에 대한 1세기의 관점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예수가 아니었습니다.
 - **4복음서 모두 부활의 첫 목격자가 여성이다.**

- 예수님은 항상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여성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.
- 이것이 제가 이 복음서를 신뢰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. 그들은 이야기를 구성하려고 시도했다면 이러한 세부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. 아무도 그들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.
- 그러나 그들은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 아니었습니까? ●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사명을 가리킨다.
- 그의 일은 인간을 하나님과 서로 화해시키는 일이다.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대로 “하나의 새로운 인류”가 됩니다.
-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을 폐기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. **우주를 마지막 Atom까지 파쇄하고 다시 시작합니다(Thanos .. IYKYK에 고덕임).**
 - 그의 관심은 갱신이다. 우리 마음에, 우리 안에 관계, 그리고 하루의 창조 전체. ● 그래서 예수는 여성의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을 확인하는 급진적인 새 윤리를 뛰어넘습니다(그것이 바로 그 이상입니다!). ● 그는 인간이 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소개합니다.
 -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...
 - 그리고 복음서 저자들은 그들이 그날의 모든 종교와 종교를 무시한다고 확신합니다.
 - 비종교적 세계는 말하고 대신 새 인류를 제시합니다.
- 우리는 이 이야기의 11절에 불과하며 부활이 이미 모든 것을 뒤집는 방식으로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거꾸로 및 오른쪽 위로.

12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다. 그는 몸을 굽혀 세마포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 하며 가버렸다. -누가복음 24:12

- “하지만 피터... 피터를 상상해봐. 며칠 전에 그는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나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. 그리고 그는 달렸다. 그는 숨겼다. 그는 그의 주님이자 친구를 저주하고 배신했습니다.
- 예수님에 대한 그의 마지막 기억 중 하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동안 그들이 눈을 마주쳤을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죽었습니다. 다 쓴.
- 후회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.
- 3일 동안 이 순간이 마음에 각인되었을 것이다. 그 고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. 당신은 할 수 있습니까?
- 사흘 동안 부끄러움에 앉아 있었습니다. 기다림은 때로 가장 힘든 것입니다. ○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신다? 그럴 수 있습니까?
 - 그는 무덤으로 달려갑니다. (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신이 달리기 경주에서 자신을 이겼다고 알려줍니다.)

● 절망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. 당신은 훨씬 덜 신경 다른 사람들은 생각합니다. 약간 어리석게 보일 용의가 있습니다. 여기 무덤으로 달려가는 베드로(요한)입니다.

■ 비어 있습니다.

누가는 훌륭한 작가입니다. 그는 우리를 자리 가장자리에 남겨 둡니다. 우리는 이 이야기를 뒤늦게 읽게 되지만 그는 실시간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글을 씁니다. 그는 더 많은 것을 위해 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? 기대세요. 그는 할 말이 더 있습니다-13절.

MVMT 2: 엠마오로 가는 길 (눅 24.13-29)

13 그 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십 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더니 14 그들은 일어난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였다. 15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의논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올라와서 그들과 함께 걸으시더라 16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. -누가복음 24:13-16

-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마침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십니다. 요한복음에서 그는 무덤 동산에서 여인 중 한 명인 마리아를 만납니다. 그러나 누가는 이야기의 또 다른 요점을 강조합니다. 그는 떠나가는 예수님의 두 제자에게 나타납니다.
- 엠마오로 가는 길 이야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. 그것은 실제로 일어났지만 인생은 엠마오로 가는 길과 같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.
- 잠시 이것에 대해 이야기합시다. Cleopas와 그의 아내는 아마도 예루살렘을 떠날 것입니다. 그들은 설레임과 기대감을 안고 불과 며칠 전 유월절을 맞이하여 도시에 들어왔습니다. 그러나 이제 그들은 깊은 공포와 두려움(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에게나 일종의 심문이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)과 절망을 안고 떠나고 있었습니다.
- 이것을 다 같이 처리하니 예수가 있다. 그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습니다. "그러나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."

- 엠마오로 가는 길은 우리의 삶과 같다.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길을 가십니다. 그는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. 그는 특히 고통 속에서 나타납니다.

- 또한... 예수의 부활한 육체는 어딘가 다르다. 변형된 신체성. 이것은 우리가 얻는 첫 번째 단서 중 하나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더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. 그분은 거기 계시고 현존하시지만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. 당신은 이것을 설명하려고 시도할 수 있지만, 아무리 거칠게 들리더라도 저자는 이것을 더 믿을만하게 만들고 자신을 더 좋게 보이도록 편집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.

- 예수님은 훌륭한 질문을 하십니다. 그것은 내가 그에 대해 사랑하고 모방하는 데 더 잘되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...

17 예수께서 그들에게 "가면서 무엇을 의논하고 있느냐?"

그들은 가만히 서서 얼굴을 내리깔았다. **18** 그 중의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예수께 묻되 "예루살렘에 와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?" **19** "무슨 일?" 그는 물었다. -누가복음 24:17-19

- 예수님을 사랑합니다. 나는 그가 너무 걱정하면서도 미소를 참는 것을 상상한다. 마치 그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.

-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.

그들은 "나사렛 예수에 대하여"라고 대답했습니다. "그는 하느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행동에 능한 예언자였습니다. **20** 대제사장들과 우리 관원들이 사형 선고에 예수를 넘겨 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**21**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랏노라 게다가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입니다. **22** 또한 몇몇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. 그들은 **23**일 아침 일찍 무덤에 가 보았지만 그의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. 그들이 와서 그가 살아났다고 말하는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. **24** 그 때에 우리 일행 몇 사람이 무덤에 가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요 예수는 보지 못하였더라

25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얼마나 어리석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얼마나 더디 믿는지 **26**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

아니냐 **27**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-누가복음 24:19-27

- 여기의 영어 번역은 거칠게 들립니다. 이 단어는 무지, 현명하지 못하거나 이해할 수 없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.
 -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.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. 수년 동안 예수 밑에서 배웠습니다.
 - 그분은 그들의 선생입니다. 그들의 랍비. 그리고 그들은 그분이 가르쳐 주신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.
- 그런 다음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 전체를 말씀해 주십니다. 그것은 내가 기록하고 싶었던 성경 공부입니다. :)
 - 지나칠 일이 아니다. 사실상 예수님은 성경 이야기(인류의 이야기이기도 함) 전체가 이 순간까지 만들어지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. 모든 이야기, 모든 시, 모든 노래, 모든 율법, 도표, 예언자, 족보 등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.
 - 그는 이야기의 절정이다.
 - 다시, 그는 이 이야기가 항상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제자들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.
 - 그리고
 - 모든 것이 쌓이는 순간이 도래했습니다. 그리고 그들은 지금 그 이야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.
 - 그들은 여전히 그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의 말을 듣습니다. 그리고 아마도 오늘 당신일 것입니다. 당신은 그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느꼈지만 여전히 그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괜찮아요.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가세요.

28 그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, 예수께서는 더 가려는 듯 계속 가셨다. **29** 그들이 예수께 강권하여 이르되 저녁이 가까우니 우리와 함께 유하소서 하루가 거의 끝났습니다.” 그래서 그는 그들과 함께 머물기 위해 들어갔습니다.

- 예수님을 사랑합니다. 그는 그와 함께 더 멀리 갈 수 있다면 기뻐할 것입니다.
- 밤길을 걷는 것은 위험합니다. 예수님은 아무렇지 않으십니다.
- 7마일을 걸었고 예수님은 피곤하거나 배고프지 않으셨습니다.
 - 다시... 변화된 예수의 육체를 엿볼 수 있다.

전환: 클레오파스와 다른 제자가 예수님께 집에 들어와 하룻밤 묵어 달라고 간청합니다...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면서도 이 (겔보기에) 이방인에게 환대를 표합니다. 그리고 이것은 이야기가 또 다른 놀라운 방향으로 전환되는 때입니다.

MVMT 3: 역전(누가복음 24:30-35)

30 그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

-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해 중요한 순간을 선택하셨습니다.

- 아마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을 때...

- 모든 복음서 저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 이야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단서를 넣었습니다.

- 제자들과 예수께서 함께 식사를 하시며 “**눈을 떴다.**” ■ 내가 예수님에 대해 좋아하는 한 가지는 **그분이 항상 먹기를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. 공통점이 있습니다.**

- 예수님은 식사 시간에도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.

- 앞서 이 모든 일이 “주간의 첫날”에 일어났다고 언급했습니다. 8일. 새로운 것의 시작.

- 누가는 종종 의사소통 방법으로 숫자 7을 사용합니다.

- 완전성.

- 지금까지 누가복음에는 일곱 번의 식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. 8번째 식사입니다.

- 8번째 식사입니다!

- 8일은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상징합니다. 8번째 식사 같은 점을 지적합니다. 이것은 새로운 것의 시작입니다.

- 우리는 이미 성경 전체 이야기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. ○ 그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... 성경에 기록된 첫 식사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?

- 창조의 첫 식사- 거짓말쟁이, 사기꾼, 이 망가진 세상의 신 사탄에게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의 식사에

- 참여한다. 결과는 비참합니다. 죽음, 슬픔,

- 고통과 적의 시대는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만연해 있습니다.

- 창조. 죽음의 저주가 인류의 어깨 위에 놓여 있습니다. -본문은 문자 그대로 "그들이 눈을 떴다"라고 읽습니다.

그들은 고통과 부끄러움을 경험하고, 서로를 비난하고 숨습니다.
하나님으로부터.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우리가 신에게 반항할 때
하향 나선입니다.

■ 하지만 지금...

■ 새 창조의 첫 식사- “그들의 눈이 밝아졌느니라.”
고통, 수치, 죽음, 부서짐 대신에...■ 그들은 예수를 본다.
■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대사 중 하나... 32절

32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
속에서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-누가복음 24:32

● 이것이 당신을 위한 나의 기도입니다. 이 정확한 순간을 경험하기 위해. ● “길에서
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
아니하더냐?”

- 불이 붙다, 어둠에서 빛으로 가다.
- 즉,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살아났다.
- 그들이 마침내 예수의 진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.
 - 메시아- 네. 그는 이 부서진 세상의 구세주입니다.
 - 신 그 자체 - 그래. 그는 계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습니다.
저주를 되돌리려면.
 - 우주의 참된 단 하나의 왕 - 죽음 그 자체라면 - 가장 위대한
이 땅의 왕들이 양보할 수 있는 무기,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...
이 남자는 누구입니까? 죽음도 그분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. 그는
우주의 진정한 왕입니다.

○ 기억하십시오. 엠마오로 가는 길은 우리가 여행하는 인생의 길과
같습니다. ○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무엇을 합니까?

33 그들은 일어나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. 거기에서 열한 사도와 그들과 함께 한
자들이 모여 **34** 말하였다.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.” **35** 두
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떤 때에 자기들에게 알아보게 된 일을 말하니라

- 그들은 일어나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. 그들이 방금 경험한 7마일의 걷기-지치고, 부서지고, 슬프고, 두려운...
-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. 죽음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?
- 이것은 그들의 삶에 큰 반전이다.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도 대반전이 될 수 있습니다.

응답: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.

회개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.

- 그 단어는 종종 잘못 이해되기 때문에 나쁜 평판을 얻습니다.
- 그림은 당신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며,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닫고는 돌아서서 그분을 향합니다.
- 오늘 당신도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. 자신의 길에서 돌이켜 진정한 왕을 향하십시오.
- 예수님은 당신을 그분의 왕국에 초대하십니다.
- 그게 무슨 뜻인가요?
-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으면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. 일종의 "감옥 무료 카드 탈출" 신학.
- 이것은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는 당신을 위해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예수님은 단지 보여주기 위해 변화된 육신의 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. 그분은 결국 우리와 모든 피조물에게 오게 될 일의 표징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.

- 육체적이지만 죄로 부서지지 않는 것.
- 폐기되지 않고 갱신됩니다.
- 새 인류, 새 하늘, 새 땅.
-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시는 것은 만물의 대역전과 회복의 역사입니다.
-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?

■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부서진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이며 우리는 죄로 더럽혀진 변형된 육체로 그것을 억제할 것입니다. 만료 기한은 없습니다. 아니 죽음. 질병이 없습니다. 고통 없음.

■ 그분은 무덤가의 여인들, 베드로, 11제자들,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. 엠마오로 가는 길.

■ 그리고 그는 당신이 그와 같은 미래의 희망으로 부활되기를 원합니다
육체적이지만 변화되어 죄와 악과 사망에서 단번에 해방됨
그리고 모두를 위해.

● 부활절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“하늘로 올라가심”으로 끝납니다.

○ 흥미롭게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긴 설명이 없습니다...

○ 우리는 종종 그를 하늘로 떠오른다고 생각한다.

○ 그러나 1세기의 청중은 이것이 역시 훌륭한 언어 사용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.

■ 카이사르는 하늘의 신권을 주장하며 로마의 왕위에 올랐고, 그는 신의 아들이었다.

■ 누가는 가이사와 그가 통치하고 대표하는 왕국이 모두 참된 왕인
예수를 가장한 자들이라고 주장합니다.

●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는 방식은 천국의 보좌에 앉아 현재와 오는 시대에 그의 삶을 공유하는 우주의 진정한 왕을 따르거나, 천국의 왕과 왕국을 따르는 선택을 당신에게 남겨둔다는 것입니다. 이 세상을 그들의 최후의 종말까지.

● 그는 온유하고 친절하며 오래 참지만 고통을 당하고 죽고 부활로 죽음을 물리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.

● 제자들처럼 모든 답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.

사도 바울은 우리를 다음과 같은 대답으로 인도합니다.

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네 마음에 하나님을 믿으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-로마서 10:9

“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” – 나의 진정한 왕. 이것은 충성의 선언이자 약속이다.
이어지는 축복.

그 단순하고 겸손한 행동은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.

우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께 응답할 기회를 줄 것입니다. 당신을 위한 공간입니다 ..

+기도 - 함께 기도할 사람들의 팀, 옆 사람에게 기대어 기도를 부탁하고, 스스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.

+세례 - 7세와 9세를 위해— 당신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(이 사람들은 이미 왕이신 예수님께 응답했습니다)

+말씀에 대한 반성 - 곧 말을 통해 이 이야기를 반성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.

+노래와 축하 -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노래하고 선포할 것입니다.

축복:

참 우주의 왕을 따르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.
그분 의 새로워진 인성의 일부 이며 ,
모든 것의 역전과 갱신을 희망하며 미래를 살아갑니다.